

구분	적용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의 주요 예시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☑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·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, 계열회사로부터 부품·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</li> <li>☑ 상품·서비스의 기획·설계·구현·운영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·용역이 필수적인 경우</li> <li>☑ 회사의 상품·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·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</li> <li>☑ 계열회사 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 또는 조직을 분사 및 통합하여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, 관련 업무를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등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☑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·핵심기술의 관리·보관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☑ 핵심적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, 기밀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</li> <li>☑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회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☑ 상품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·부품, 설비 등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</li> <li>☑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☑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품수거 또는 리콜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수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</li> </ul>